

K-배터리, 전기차 R&D 1.8조 투입... “위기를 기회로”

(삼성SDI·LG엔솔·SK온)

경기침체로 전기차 수요 위축
영업의 감소에도 투자방침 지속
“고객사 니즈 반영 기술개발 주력”

성장가도를 이어가던 배터리업체가 전기차 수요 위축에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국내 배터리 업체는 투자 속도 조절은 물론 연구개발(R&D)에 집중하며 더 먼 거리를 달리기 위한 미래를 준비 중이다.

19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 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올해 상반기 예측한 1484만대에 비해 107만대 줄어든 1377만대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평균 성장률도 기존 36.4%에서 30.6%로 소폭 하락 조정할 수치를 발표했다.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고금리·고물가로 대변되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 소비 심리가 위축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전기차는 물론 자동차를 구입하는



SK온이 지난 3월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공개한 전고체배터리 개발품. SK온은 2026년 초기단계 시제품 생산을 목표로 고분자-산화물 복합계와 황화물계 등 두 종류의 전고체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SK온

소비자들은 대부분 할부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금리 인상은 소비 위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유럽발 전기차 구매 축소 움직임이 속도가 붙으면서 한동안 전기차 수요 둔화는 막지 못할 전망이다. 분석도 나온다.

실례로 상반기 13만7919대의 전기차 판매된 프랑스는 탄소배출량을 기존

보조금 기준에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중국 시장마저도 중국이 전기차 시장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까지 겹쳐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 한몫을 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GM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차 40만대 생산계획

을 철회했고, 포드의 경우는 120억달러 규모의 전기차 투자 계획을 미뤘다. 이밖에 폭스바겐과 테슬라와 같은 완성차 업체도 공장 착공 시점을 연기했다.

그럼에도 배터리업계는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자세와 수주 사업이기 때문에 영업의 감소는 있어도 당장 ‘보릿고개’를 걱정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로 인한 배터리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도 배터리 사들은 R&D 투자 부분은 오히려 더 늘리는 중이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3사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사의 R&D 비용은 총 1조 78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규모다. 매출액에 대비해도 3사의 R&D 비용 증가 추세는 뚜렷했다.

삼성SDI는 R&D 누적 투자금이 3사 중 가장 많았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R&D 비용은 8364억원으로 전고체 배

터리 양산 시점은 2027년으로, LFP 소재 개발 시기를 2026년으로 제시하고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7304억원을 R&D에 투자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작년 동기 6340억원과 대비해 15.2% R&D 규모를 늘리고 차세대 고용량·고안전성 소재 개발과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비롯해 스마트팩토리 사업 확대에 자금을 투입한다.

SK온의 R&D 비용은 올해 1~3분기 2207억원을 지출했으며 2025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9년 양산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매진 중이다.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생산 능력 확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 기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전기차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고객사들의 니즈를 반영한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현대차, OECD 교통포럼서 ‘셔클’ 서비스 선보

(수요응답형 교통 플랫폼)

수요응답형 교통 플랫폼 서비스 상황 점검
김영태 사무총장 등 관계자 ‘뚝타’ 체험

현대자동차가 수요응답형 교통 플랫폼 셔클을 글로벌로 확대한다.

현대차는 17일 경기도 하남에서 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 김영태 사무총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뚝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ITF는 육상교통과 환경 등 분야에서 글로벌 아젠다를 설정하고 논의를 주도하는 국제기구다. 한국과 미국, 영국 등 66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뚝타는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로, 현대차의 수요응답형 교통 플랫폼인 셔클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현대차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편의성과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서비스 글로벌 확대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 ITF 관계자 등에 뚝타 체험 자리를 마련했다.

현대차는 시승에 앞서 관계자들에 뚝타 서비스 운영 방식과 셔클 플랫폼 지역 맞춤형 솔루션 등을 설명했다. 이어서 일반 소비자들과 같이 버스를 호



OECD 국제교통포럼 관계자들이 ‘뚝타’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출하고 탑승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교통 경로 탐색 등 기술력을 직접 보여줬다.

현대차는 셔클 플랫폼을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에서도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시승을 계기로 글로벌 실증사업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했다.

OECD 국제교통포럼 김영태 사무총장은 “셔클 서비스는 플랫폼 기술을 통해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교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모

빌리티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교통서비스의 포용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가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셔클사업실 김수영 상무는 “지난 2년간 셔클 플랫폼은 경기도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스마트 대중교통 솔루션으로 자리잡았다”며 “OECD 국제교통포럼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 교통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

제주항공 “‘제주형 UAM’ 상용화 추진”

제주 국제 UAM·드론 컨퍼스타

전시관 운영... UAM 사업 비전 공유

제주항공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제주 국제 UAM·드론 컨퍼스타’에 참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3 제주 국제 UAM·드론 컨퍼스타’는 ‘제주 UAM, 제주 하늘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UAM 산업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제주형 UAM 상용화를 위한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주항공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제주항공이 추진하고 있는 UAM 사업의 개념과 사업 비전을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했다. 제주항공의 UAM OCC(운항통제·비행계획·비행감시) System과 UAM 조종 시뮬레이터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UAM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밖에 제주항공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제주형 UAM 상용화를 위한 사업 진행 방향성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3 제주 국제 UAM·드론 컨퍼스타’에서 박태하 제주항공 UAM 사업추진단장이 ‘UAM VISION, 꿈을 현실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항공

에 대한 발표도 진행했다. 제주항공이 해외 기체사 EVE와 공동 연구를 통해 발간한 ‘제주지역 UAM 운용 백서’를 바탕으로 제주도 기반 UAM 사업 상용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운송사업자로서 항공 경영의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UAM사업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항공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더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항공이 항공 여행 대중화를 이끌어 낸 경험을 활용해 UAM 대중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두산에너지빌리티, 초거대 AI 등 디지털 트렌드 공유

제2회 DX 포럼

디지털 디렉터 기술 진화 등 발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DX Forum 2023’를 통해 디지털 트렌드를 다루는 자리를 가졌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AI로 진화하는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DX Forum’은 산업계 디지털 트렌드를 공유하

고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 해 처음 열렸다.

이날 포럼에선 ▲초거대 AI가 가져올 디지털 UX의 미래 ▲산업 AI의 현재와 미래 ▲2024 AI로 진화하는 산업의 경쟁력(두산에너지빌리티 사례)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다. 이어진 산업 적용 사례 소개로 ▲초거대 AI를 적용한 터빈 진단 서비스 ▲산업용 디지털 디텍터(Digital Detector) 기술의 진화 등이 발표됐다.

송용진 두산에너지빌리티 전략혁신부문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두산에너지빌리티의 디지털 솔루션으로 각종 산업현장에서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서비스 방향성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특히 최근 화두인 초거대 AI, 생성형 AI 기술을 발전과 제조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산업계의 노력들도 활발히 공유하는 등 실용적인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티웨이항공

11~12월 항공권 특가 판매

국내·국제선 42개 노선 할인

티웨이항공이 프로모션 특가로 항공권을 판매한다.

19일 티웨이항공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6일까지 ‘11~12월 출발 임박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특가 프로모션은 국내선 5개 노선과 국제선 37개(일본, 동남아, 호주, 중화권, 중앙아시아, 대양주) 노선 대상 특가 항공권을 판매한다. 탑승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우선 국제선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초특가 운임 이벤트를 진행한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기준 ▲인천~나트랑 13만9800원~▲인천~비엔티안 15만2400원~▲인천~코타키나발루 13만9800원~▲인천~칭다오 7만4500원~▲인천~시드니 36만9190원~▲인천~사가 9만9500원~▲청주~나트랑 13만4800원~▲청주~다낭 13만4800원~▲대구~다낭 13만1680원부터 판매한다.

초특가를 놓쳤더라도 할인 코드 ‘임박특가’를 입력하면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별 편도 및 왕복 항공권에 3~10%의 즉시 할인이 적용된다. /허정윤 기자